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 전략 및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연구

김민선\* · NIU LEI\*\*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중급 및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각 30명을 대상으로 3개의 비동의 상황에서의 발화 양상을 서면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나타난 비동의 화행 전략과 어휘적 완화 장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수궁’, ‘인정’과 같은 동감적 비동의 전략과 ‘그렇군요’, ‘그래요’와 같은 동감형 완화 장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해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해당 전략과 어휘적 완화 장치의 사용이 낮고 ‘좀’, ‘약간’ 등 약화형 완화 장치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분석 및 사후 표준화 잔차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중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비동의 전략 및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양상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동의 화행 지도 시 전략 교수와 함께 동감형 어휘적 완화 장치를 초급 및 중급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비동의 화행, 어휘적 완화 장치, 화행 전략,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 제1저자: 서울신학대학교 초빙교수(한국어교육 전공)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국어교육 전공)

## 1. 서론

비동의는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기 쉬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화행(Face-Threatening Act, FTA) 유형이며 토론 상황뿐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빈번하게 쓰인다. 같은 비동의라도 화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어느 정도로 완화하며,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호작용의 협력성 및 상대방의 체면 고려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한국어는 높임 체계와 종결어미 선택에 따른 표현 조정이 중요한 언어이므로, 비동의 화행에서의 전략 선택과 완화 장치 운용은 한국어 화용 능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비동의를 수행할 때 문법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불손함, 거리감, 비협조성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자 중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 모두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지만 비동의 표현에서 선호하는 표현 방식, 근거 제시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Niu Lei·권순희, 2024; 총미가, 202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비동의 수행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비동의 발화 특성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교육적으로도 어떤 지점을 강화해야 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동의 화행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완화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비동의 화행에 관한 연구는 요청이나 거절 화행 연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축적된 연구물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미국(조은미, 2020), 프랑스(김태은, 2020), 태국(이혜원 외, 2021), 일본(후지이 지후미, 2022), 네덜란드(이민경, 2024), 중국(Niu Lei·권순희; 총미가, 2024) 등과 같이 다양한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국인과의 비동의 화행 사용 양상을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도 화행이나 사회적 변인에 따른 비동의 화행 양상(이혜원 외, 2021; 총미가, 2024)을 살펴보거나 비교문화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조은미, 2020)도 있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텍스트(이혜원, 2022) 및 한국어 교재 대화문(이혜진, 2025)에 나타난 비동의 화행을 분석한 교육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 중 2편의 연구(이혜원 외, 2021; Niu Lei·권순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어 학습자의 완화 장치 사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는 않았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 나타난 어휘적 완화 장치(황선영, 2014) 및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황선영, 2016)에 대한 연구와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완화 장치 사용(Rosyadi, Alfiana Amrin, 2019)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적 완화 장치(어휘적 완화 장치, 문법적 완화 장치, 억양으로 실현되는 완화 장치)와 비언어적 완화 장치(부차언어적 완화 장치, 신체적 완화 장치)의 사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을 살펴본 포괄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김민선, 2018). 이들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인에 비해 한정적인 완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위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비동의 화행 전략과 완화 장치 사용을 함께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체면 위협 화행의 경우, 두 집단의 화행 전략 사용이 같더라도 화행 실현에 사용된 완화 장치의 유무와 빈도, 적절성에 따라 해당 전략의 간접성이나 공손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와 한국인의 화행 전략 사용이 같았다는 것만으로는 학습자가 한국인과 같은 발화를 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화행 전략과 완화 장치 사용까지 함께 분석했을 때, 두 집단의 발화를 비교한 결과가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한국인과 비교하되, 그 전략 사용의 주요한 차이가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의 유무 및 빈도에 있다고 상정하고 비동의 전략과 어휘적 완화 장치의 사용 양상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의 특징을 규명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용적 실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고의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중국인 중급 및 고급 학습자, 그리고 한국인의 비동의 화행 전략 사용은 어떠한가?
2. 중국인 중급 및 고급 학습자, 그리고 한국인의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은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비동의 화행 전략

비동의에 대한 개념은 Edstrom(2004)에서 찾을 수 있다. Edstrom(2004)은 비동의를 ‘상대방의 생각이나 관점, 혹은 신념과 다르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화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반박할 수도 있고 침묵을 통해 부인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명희(2017)는 반대를 ‘화자 S가 청자 A가 발화하였거나 주장한다고 여겨지는 명제 P를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P가 아닌 명제의 내용 또는 함축을 담아 표현하는 발화’로 정의하였다.

비동의 화행 전략에 대한 분류는 김명희(2017), 전정미(2020), NIU LEI·권순희(2024)에서 찾을 수 있다. 김명희(2017)에서는 비동의의 강도에 따라 ‘약화된 비동의’, ‘중립된 비동의’, ‘강화된 비동의’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전정미(2020)에서는 비동의 응답 화행의 적극성에 따라 ‘적극적 비동의’, ‘소극적 비동의’, 그리고 ‘약화된 비동의’로 분류하였다. 한편 NIU LEI·권순희(2024)에서는 비동의 화행 전략을 <표 1>과 같이 공감 표현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공감적’ 비동의 화행과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으로 나누었다. 공감적 비동의 화행에는 반응, 인정 및 이해, 확인 질문이 있으며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에는 부정 표현, 상반 의견 제

시, 대안 제시 전략이 속한다.

<표 1> 비동의 화행 전략 분석 틀 (NIU LEI · 권순희, 2024)

비동의 화행	하위 범주
공감적 비동의 화행	1.반응
	2. 인정/이해 상반 의견 제시 제안하기
	3. 확인 질문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4. 부정 표현
	5. 상반 의견 제시
	6. 대안 제시

한편 공감은 상대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연대를 나타내는 반면, 동감은 상대의 주장이나 평가에 대한 동의 표시로서 의견일치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비동의 화행에서 동감은 반대 제시 이전의 동의 표지로 기능하고, 공감은 상대의 정서에 대한 수용을 통해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작동하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보다 ‘동감’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 ‘동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본고는 전술한 용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비동의 화행 전략 분석 틀을 상세화하였는데, 동감적 비동의와 비동감적 비동의라는 상위 구분을 유지하면서 각 비동의에서 나타나는 실현 방식을 기능 중심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수집·분석한 학습자 발화에서 나타난 다양한 전략들도 하위 범주화했는데, 가령 근거 제시, 단정 피하기, 보류, 질문형 의견 제시, 간접적 반박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동감적 비동의에서도 ‘수궁’과 ‘인정’을 구분해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는 반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했다. 최종적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비동의 화행 전략 분석틀을 확정하였는데, 상세화된 비동의 화행 전략을 독립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비동의의 수행 방식 차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의 예시 발화<sup>1)</sup>는 본고가 수집한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에서 발췌한 것이다. 단, ‘단정 피하기’ 전략은 중국인 학습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국인의 발화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표 2) 비동의 화행 전략 분석틀

비동의 화행	전략	예시 발화
동감적 비동의	수긍	아~ 그렇군요. 제가*(저는)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방학에 논문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같아요)
	인정	방학 동안 알아보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죠.
비동감적 비동의	의견 제안	나는 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질문형 의견 제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엄청 피곤할 걸?
	근거 제시	자기의*(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는*(갖는) 것이 더 좋죠. 좋아하니까 일한*(일하는) 동안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같아요). 안 그러면 인생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단정 피하기	제가 봤었을 때는 되게 외향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앞이어서 그랬나?
	확인 질문	그러면 졸업논문은 언제 준비해요?
	보류	얼마를 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	아니죠. A는 진짜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간접적 반박	진짜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 2.2. 어휘적 완화 장치

완화 장치란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도 발화수반력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기제를 말한다.<sup>2)</sup> 김민선(2018)은 완화

- 1) <표 5>에 제시된 발화 맥락을 참고하면 제시된 예시 발화가 어떤 내용에 대한 비동의 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수긍’ 및 ‘근거 제시’ 전략은 중국인 학습자 발화에 있었던 문법 및 어휘 오류\*를 그대로 옮겼다.
- 2) 완화 장치는 특정 학자에 의해 개념과 분류 체계가 이론화되었다기보다 인지언어학자

장치가 언어 보편적으로 어휘, 형태, 통사, 음성 등의 언어 체계 전반과 비언어적 영역에서 편재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며 아래 <표 3>과 같이 완화 장치를 분류하였다.

이중 어휘적 완화 장치는 어휘적인 언어 형식들이 화행에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키는 완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데(Blum-Kulka 와 Olshtain, 1984; House와 Kasper, 1987), 본고는 어휘의 개념을 넓게 보아 어휘적 완화 장치가 실현되는 범주가 단일 어휘형태소뿐만 아니라, 어휘적 형태소들이 형태적 형태소들과 결합하여 굳어져 사용되는 구(phrase), 상투어(conventional phrases) 및 관용 표현(idiomatic expression)을 모두 포괄한다.<sup>3)</sup>

<표 3> 완화 장치의 분류(김민선, 2018:54)

완화 장치	언어적	어휘적 완화 장치
		문법적 완화 장치
		억양으로 실현되는 완화 장치
	비언어적	부차언어적 완화 장치
		신체적 완화 장치

한편 본고에서는 언어적 완화 장치 중 어휘적 완화 장치에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 전략 사용의 가장 큰 차이는 비동감적으로 비동의를 하느냐 동감적으로 비동의를 하느냐로 갈리는데(NIU LEI·권순희, 2024), 비동감과 동감의 구분은 비동의 화행 실현에 있어 어휘적 완화 장치인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요’ 등과 같은 언어 표현의 사용 유무가 두 전략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

G. Lakoff(1972)에 의해 제시된 ‘헤지(hedge)’의 개념이 화용적 차원에서 조명되면서, 화행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완화 장치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민선 2018:34-35).

3) 관련 연구들(Blum-Kulka & Olshtain, 1984; 이해영, 1996; 김명운, 2009; 구현정, 2004; 이은희, 2013; 황선영, 2014)에서도 완화 장치가 단일 어휘뿐만 아니라 구나 상투어로 실현됨을 언급하고 어휘적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표현은 맞장구 표현으로서, 어휘적 완화 장치로 취급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어휘적 완화 장치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김민선(2018)에서의 어휘적 완화 장치 분석틀을 참고하고4), 본고가 수집한 발화에서 나타난 어휘적 완화 장치를 추가하여 아래 <표 4>와 같은 분석틀을 확정하였다.

<표 4> 어휘적 완화 장치 분석틀

유형	어휘적 완화 장치
약화형	좀, 조금(만), 조금이라도, 약간(만),
	잠시(만), 잠깐
	한번(만)
	그렇다 ((예) 안 된다, 싫다, 나쁘다 → ‘좀 그런데요.’) 힘들다/어렵다 ((예) 안 된다 → ‘힘들 것 같아요.’)
집착형	아마(도)
	혹시(나), 혹여(나)
모호형	뭐, 글썄
	약, 한, 대략, 정도, 대강
조건형	가능하다(시)면, 괜찮(시)면, 가능하면, 가능한 한
주관형	내(제)가 보기에는, 내(제)가 본 N는, 내(제)가 볼 때는, 내(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다 (나는(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봤을 때, 내(제)가 경험했을 때, 내(제) 경험으로는, 내(제) 경험상
	개인적으로, 내(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제) 개인적으로, 내(제) 생각으로
동감형	내(제)가 느끼기에는, 나(지)한테(는), 내(제) 느낌으로는, 내(제) 눈에는
	그렇구나, 그렇(시)군(요), 그래(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인지형	나(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어, 응

4) 김민선(2018)에서는 공손성을 실현하는 어휘적 장치들을 살펴본 연구 및 화행에서 발화수반력을 낮추는 기제로 사용된 언어적 장치를 다른 연구들을 다수 참고하여 어휘적 완화 장치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55~64쪽을 참고할 것.

어휘적 완화 장치 유형에는 약화형, 짐작형, 모호형, 조건형, 주관형, 동감형, 인지형 7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에는 다양한 한국어 어휘 표현들이 속한다. 약화형(좀, 조금, 약간, 잠깐, 잠시, 한번, 좀 그런데요, 힘들 것 같아요 등), 짐작형(아마, 혹시), 모호형(뭘, 글썄, 약, 한, 대략, 정도 등), 조건형(가능하면, 괜찮으면 등), 주관형(내(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내(제) 경험상, 내(제)가 느끼기에는 등), 동감형(그렇군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등), 인지형(아, 어, 응)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 발화에서 어떤 완화 장치가 사용되었는지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면으로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를 사용하여 중국인과 한국인의 실제 담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세 가지 비동의 상황에서 응답을 작성하였는데, 본 연구의 서면 DCT 상황 구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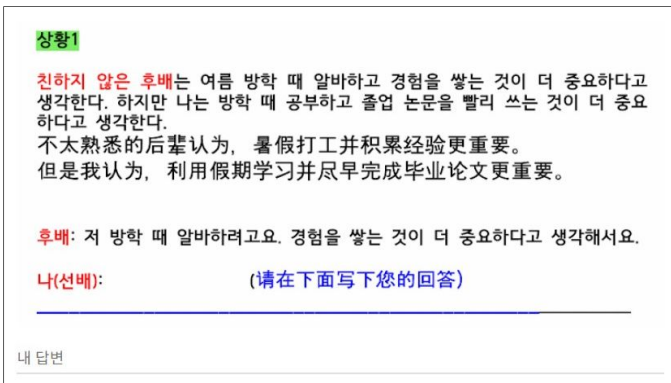
<표 5> DCT 상황 구성

번호	관계	상황
1	>	친하지 않은 후배는 여름 방학 때 알바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방학 때 공부하고 졸업 논문을 빨리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	친하지 않은 선배는 A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A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	친하지 않은 친구는 관심이 있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동의를 표해야 하는 상대와의 상하 관계는 낮거나(후배) 같거나(친

구) 높은(선배) 상황으로 구성하였으며, 친소 관계에 있어서는 모두 ‘친하지 않은’ 관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본고가 수집, 관찰하려고 하는 완화 장치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장치였다. 즉 친한 관계보다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비동의를 해야 할 때 화자가 더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표현하게 되므로 완화 장치를 더 많이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예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더불어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설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번역을 병기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DCT 응답 중 상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않은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sup>5)</sup>



[그림 1] 설문지 예시

본 연구의 참여자 구성은 다음 <표 6>과 같다. 한국인 30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국인 학생

5) 집단별로 제외된 발화 수는 다음과 같다. 중국인 고급 집단은 상황 1에서 3개, 상황 3에서 1개 발화가 제외되어 총 4개(총 90개 중 4개)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중급 집단은 상황 1에서 1개, 상황 3에서 2개 발화가 제외되어 총 3개(총 90개 중 3개)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한국인 집단은 상황 3에서 1개 발화가 제외되어 총 1개(총 90개 중 1개)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들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었으며, 중급 학습자 가운데에서는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연수생도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숙달도(6)에 따라 고급 집단 30명과 중급 집단 30명이었는데, 고급 집단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평균 4.8년,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3.5년이었다. 중급 집단의 한국어 학습 기간과 한국 체류 기간은 모두 평균 16개월이었다.

〈표 6〉 연구 참여자 구성

연구 대상	인원(명)	한국어 능력	한국어 학습 기간 (평균)	한국 체류 기간 (평균)
중국인	30	고급	4.8년	3.5년
	30	중급	16개월	16개월
한국인	3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각 집단의 비동의 화행 전략 및 어휘적 완화 장치의 사용은, 어떤 전략 및 완화 장치가 몇 번 사용됐는지 빈도로(7) 분석되었다. 그리고 각 집단의 사용 유형 분포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교차분석(Pearson's Chi-squared test)을 실시해 검증하였는데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를 초과하여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의확률을 적용하였다. 결과 해석에 있어서는 표준화 잔차를 계산하여 화행 전략 유형 및 완화 장치의 유형별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6)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등급 또는 한국어교육기관 수학 등급이 3급이나 4급이면 중급으로, 5급이나 6급이면 고급으로 분류하였다.

7) 하나의 비동의 발화에는 단수 또는 복수의 비동의 전략 및 완화 장치들이 사용되었다. 전략 빈도를 계수함에 있어서는 비동의 발화를 문장 단위로 살펴 각 문장이 어떠한 전략을 나타내는지 해석하여 분석하였다. 한 개의 문장이 하나의 전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이어진 두세 개의 문장이 하나의 전략을 형성할 때도 있었다. 또한 동감적 비동의 전략과 비동감적 비동의 전략이 동시에 한 발화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 4. 비동의 화행에서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전략 및 완화 장치 사용 분석

### 4.1. 비동의 화행 전략 사용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한 비동의 화행 전략의 빈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세 집단 모두에서 비동감적 비동의가 동감적 비동의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집단별로 그 비중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동감적 비동의의 소계는 중국인 중급 87.4%(104회), 중국인 고급 77.7%(108회), 한국인 62.2%(120회)로, 중급→고급→한국인 순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동감적 비동의의 소계는 중국인 중급 12.6%(15회), 중국인 고급

<표 7> 비동의 화행 전략 사용 빈도 및 교차 분석

회(%)

		중국인 중급	중국인 고급	한국인	
동감적 비동의	수긍	0	12(8.6)	45(23.3)	
	인정	15(12.6)	19(13.7)	28(14.5)	
소계		15(12.6)	31(22.3)	73(37.8)	
비동감적 비동의	의견 제안	81(68.1)	75(54.0)	70(39.3)	
	질문형 의견 제시	0(0)	2(1.4)	9(4.7)	
	근거 제시	13(10.9)	11(7.9)	15(7.8)	
	단정 피하기	0(0)	0(0)	2(1.0)	
	확인 질문	1(0.8)	7(5.0)	17(8.8)	
	보류	2(1.7)	1(0.7)	1(0.5)	
	부정	5(4.2)	11(7.9)	3(1.6)	
	간접적 반박	2(1.7)	1(0.7)	3(1.6)	
	소계		104(87.4)	108(77.7)	120(62.2)
	총계		119(100.0)	139(100.0)	193(100.0)

\*  $\chi^2 = 78.926$ ,  $df = NA$ (Monte Carlo),  $p < .001$   
 (Pearson's Chi-squared test with simulated p-value based on 10,000 replicates)

22.3%(31회), 한국인 37.8%(73회)로, 중급→고급→한국인 순으로 증가하였다. 즉, 학습자 집단은 비동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에 더 의존하는 반면, 한국인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한 동감적 완화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전략별로 보면 세 집단 모두에서 ‘의견 제안’ 전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중국인 중급은 68.1%(81회)로 가장 높았고, 중국인 고급 54.0%(75회), 한국인 39.3%(70회)로 나타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모어 화자 집단일수록 ‘의견 제안’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숙달도가 낮을수록 비동의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안 형태로 직접 제시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반면, 고급 학습자와 한국인은 보다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감적 비동의에서는 ‘수긍’ 전략이 한국인 집단(23.3%, 45회)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할 때 중국인 고급은 8.6%(12회), 중국인 중급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 전략은 세 집단 모두에서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나(중급 12.6%(15회), 고급 13.7%(19회), 한국인 14.5%(28회)), 한국인 집단에서 동감적 비동의의 전체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모어 화자는 ‘인정’뿐 아니라 ‘수긍’을 포함한 동감적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동감적 비동의의 하위 전략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확인 질문’은 중국인 중급에서 0.8%(1회)로 매우 낮았고 중국인 고급에서 5.0%(7회)로 빈도가 높아졌다. 반면 한국인 집단에서는 8.8%(17회)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급 및 한국인 집단에서 질문을 통해 비동의를 간접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문형 의견 제시’는 중국인 고급 1.4%(2회), 한국인 4.7%(9회)에서만 나타났고, 중국인 중급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부정’ 전략은 중국인 고급 7.9%(11회), 중국인 중급 4.2%(5회)로 나타나 한국인 1.6%(3회)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 집단이 모어 화자보다 명시적 부정에 기반한 비동의 표현을 더 자주 선택하는 경향을 시사한다. 이외에 ‘근거 제시’는 세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중급 10.9%(13회), 고급 7.9%(11회), 한국인 7.8%(15회)), ‘단정 피하기’는 한국인 집단에서만 1.0%(2회)로 관찰되었다. ‘보류’는 전반적으로 낮은 빈도로 나타났고(중급 1.7%(2회), 고급 0.7%(1회), 한국인 0.5%(1회)), ‘간접적 반박’은 모든 집단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비동의 상황에서 비동감적 전략, 특히 ‘의견 제안’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인은 ‘수긍’과 같은 동감적 전략 및 ‘확인 질문’과 같은 간접화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여 비동의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중국인 고급 집단은 중급 집단보다 동감적 전략과 질문 기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해, 모어 화자 양상에 일부 가까워졌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했을 때, 집단 간 비동의 전략 사용 양상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모어 화자는 동감적 비동의(37.8%)를 활발히 사용하는 반면, 중국인 중급 학습자는 비동감적 비동의(87.4%)에 강하게 편중된 양상을 보였는데, <표 8>은 교차 분석 후 사후 분석으로 진행된 표준화 잔차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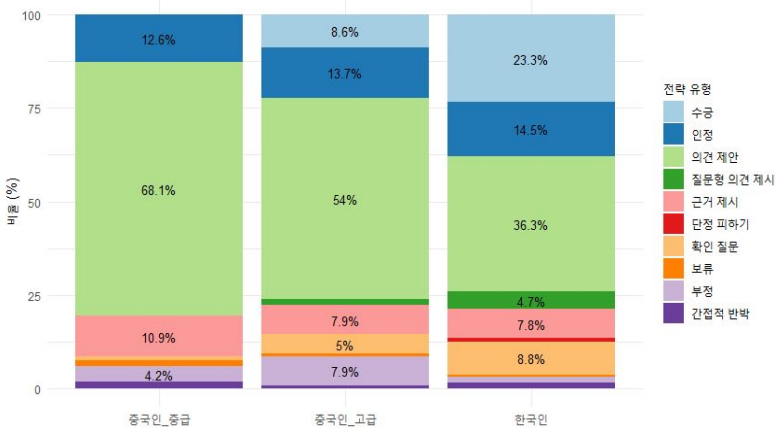
<표 8> 비동의 화행 전략 표준화 잔차

대분류	세부 전략 유형	중국인 중급	중국인 고급	한국인
동감적비동의	수긍	0 (-4.84*)	12 (-1.71)	45 (5.90*)
	인정	15 (-0.42)	19 (-0.03)	28 (0.41)
	의견 제안	81 (4.57*)	75 (1.09)	70 (-5.08*)
비동감적비동의	질문형 의견 제시	0 (-2.01*)	2 (-0.92)	9 (2.65*)
	근거 제시	13 (1.03)	11 (-0.37)	15 (-0.57)
	단정 피하기	0 (-0.85)	0 (-0.95)	2 (1.64)
	확인 질문	1 (-2.61*)	7 (-0.31)	17 (2.62*)
	보류	2 (1.08)	1 (-0.25)	1 (-0.72)
	부정	5 (-0.01)	11 (2.61*)	3 (-2.43*)
	간접적 반박	2 (0.39)	1 (-0.76)	3 (0.36)
합계		119	140	193

괄호 내 수치는 표준화 잔차임. 절댓값이 1.96 이상인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표준화 잔차 분석은 특정 항목의 유의성을 검증해 주는데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비동의를 표현할 때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먼저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긍 전략(5.90)을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문형 의견 제시(2.65)와 확인 질문(2.62)처럼 자신의 입장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우회적 전략을 비교적 높은 빈도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 중급 집단에서는 의견 제언(4.57) 전략이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한국어의 완곡한 표현보다는 중국인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어 담화에서 중요한 비동의 전략인 수긍(-4.84), 질문형 의견 제시(-2.01), 확인 질문(-2.61) 등은 유의하게 적게 사용되는 것이 보였다. 또한 중국인 고급 집단에서는 적극적 비동의 전략인 부정(2.61) 전략 사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급에서 동감적 비동의 전략 사용이 높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어 숙달도가 향상되어도 중국인의 명확한 비동의 표현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래 [그림 2]는 각 집단의 비동의 전략 양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중급에서 보이지



[그림 2] 집단별 비동의 전략 사용 비율

않는 수경 전략이 고급에서 상당히 나타나며 질문형 의견 제시 전략도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한국인의 사용과 가까워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 비동의 화행에 쓰인 어휘적 완화 장치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한 어휘적 완화 장치의 빈도를 분석한다. 우선 학습자 숙달도 및 모국어 집단에 따른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빈도 및 교차 분석

유형	회(%)		
	중국인 중급	중국인 고급	한국인
약화형	9 (53.0)	5 (10.9)	6 (6.5)
집착형	3 (17.6)	3 (6.5)	0 (0.0)
모호형	0 (0.0)	0 (0.0)	4 (4.3)
조건형	0 (0.0)	1 (2.2)	2 (2.2)
주관형	4 (23.5)	9 (19.6)	11 (12.0)
동감형	0 (0.0)	17 (36.9)	43 (46.8)
인지형	1 (5.9)	11 (23.9)	26 (28.2)
합계	17 (100.0)	46 (100.0)	92 (100.0)

\*  $\chi^2 = 53.046$ ,  $df = NA$ (Monte Carlo),  $p < .001$   
(Pearson's Chi-squared test with simulated p-value based on 10,000 replicates)

<표 9>를 보면, 집단 간 완화 장치 사용 유형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53.046$ ,  $p < .0001$ ). 단,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를 초과하여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의확률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중급 학습자

는 ‘악화형(53.0%, 9회)’과 ‘짐작형(17.6%, 3회)’의 사용 비중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발화 예시이다.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발화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 ㉠ 악화형: 저는 방학 때 공부를 해서 졸업 논문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 짐작형: 그는 아마 천천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인 모어 화자는 ‘동감형(46.8%, 43회)’과 ‘인지형(28.2%, 26회)’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동감형’의 경우 중국인 중급 학습자 집단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다음은 예시 발화이다. 한국인의 발화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 ㉠ 동감형: 그렇구나. 그런데 일단 논문 쓰고 전공하고 관련된 경험 쌓는 게 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어.
- ㉡ 인지형: 웅웅. 맞지! 돈 중요하지...!! 돈 어느정도 벌면서도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중급 학습자에 비해 ‘동감형’과 ‘인지형’의 사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완화 장치 사용 양상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유사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예시 발화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발화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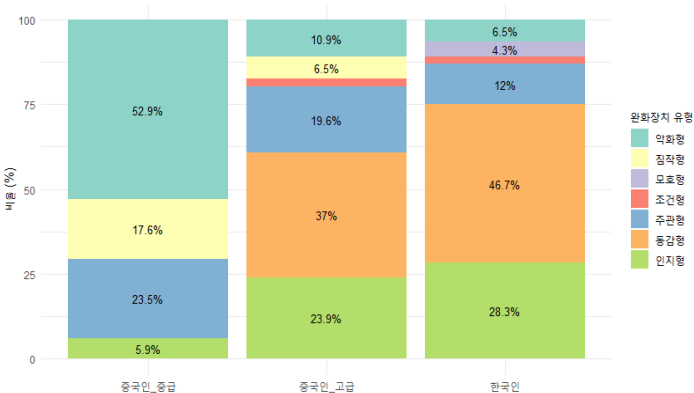
- ㉠ 동감형: 그래요? 자랑\*(저랑) 만났을 때 되게 밝고 외향적인데요.
- ㉡ 인지형: 아~ 그렇군요. 제가\*(저는)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방학에 논문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같아요).

〈표 10〉 어휘적 완화 장치 표준화 잔차

유형	중국인 중급	중국인 고급	한국인
약화형	9 (5.22*)	5 (-0.49)	6 (-2.86)
짐작형	3 (3.12*)	3 (1.11)	0 (-3.02)
모호형	0 (-0.71)	0 (-1.32)	4 (1.68)
조건형	0 (-0.61)	1 (0.14)	2 (0.26)
주관형	4 (0.97)	9 (0.91)	11 (-1.47)
동감형	0 (-3.47)	17 (-0.29)	43 (2.48*)
인지형	1 (-1.89)	11 (-0.11)	26 (1.31)

괄호 내 수치는 표준화 잔차임. 절댓값이 1.96 이상인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표준화 잔차 분석을 통해 각 셀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표 10>에  
서와 같이 중국인 중급 학습자는 ‘약화형(잔차 5.22)’과 ‘짐작형(잔차  
3.12)’에서 기대빈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한국  
인 모어 화자는 ‘동감형(잔차 2.48)’에서 유의하게 높은 사용 빈도를 보  
였으나, ‘약화형(잔차 - 2.86)’과 ‘짐작형(잔차 - 3.02)’의 사용은 기대치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집단이 모어 화자에  
비해 특정 완화 장치 유형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특정 유형을 회피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를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집단별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비율

한편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이 비동의 회행에서 사용한 어휘적 완화 장치 유형별 세부 표현의 사용 빈도를 상세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어휘적 완화 장치 상세 빈도

회(%)

유형	어휘적 완화 장치 <sup>8)</sup>	중국인 중급		중국인 고급		한국인	
약화형	좀, 약간(만), 조금이라도	9(53.0)	9(53.0)	5(10.9)	5(10.9)	3(3.3)	6(6.5)
	한번(만)	0(0)		0(0)		3(3.3)	
짐작형	아마(도)	3(17.6)	3(17.6)	3(6.5)	3(6.5)	0(0)	0(0)
모호형	뭐, 글썄	0(0)	0(0)	0(0)	0(0)	1(1.1)	4(4.3)
	약, 한, 정도	0(0)		0(0)		3(3.2)	
조건형	괜찮으(시)면, 가능하면, 가능한 한	0(0)	0(0)	1(2.2)	1(2.2)	2(2.2)	2(2.2)
주관형	내(제)가 보기에는, 내(제)가 볼 때는, 내(제) 생각에는	3(17.6)	4(23.5)	1(2.2)	9(19.6)	6(6.5)	11(12.0)
	내(제) 경험으로는, 내(제) 경험상	0(0)		1(2.2)		2(2.2)	
	개인적으로, 내(제) 개인적인 의견은	1(5.9)		3(6.5)		2(2.2)	
	내(제)가 느끼기에는, 내(제) 눈에는	0(0)		4(8.7)		1(1.1)	
동감형	그렇구나, 그렇(시)군(요), 그래(요)	0(0)	0(0)	13(28.2)	17(36.9)	41(44.6)	43(46.8)
	맞아(요)	0(0)		3(6.5)		1(1.1)	
	나(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0(0)		1(2.2)		1(1.1)	
인지형	아, 어, 응	1(5.9)	1(5.9)	11(23.9)	11(23.9)	26(28.2)	26(28.2)
합계		17(100.0)		46(100.0)		92(100.0)	

먼저 중국인 중급 집단에서는 약화형의 사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53.0%, 9회), ‘좀, 조금(만), 약간(만), 조금이라도’가 어휘적 완화 장치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주관형이 23.5%(4회)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내(제)가 보기에는, 내(제) 생각에는’류가 17.6%(3회)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내(제) 개인적인 의견은’류가 5.9%(1회)로 나타났다. 또한 짐작형 ‘아마(도)’는 17.6%(3회)로 나타나 중급 집단은 약화형을 중심으로 주관형과 짐작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모호형 및 조건형, 동감형은 중급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인 고급 집단에서는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양상이 중급 집단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급 집단은 동감형의 사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6.9%, 17회), 특히 ‘그렇구나, 그렇(시)군(요), 그래(요)’류가 28.2%(13회)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인지형 ‘아, 어, 응’이 23.9%(11회)로 나타났고, 주관형이 19.6%(9회)로 확인되었다. 주관형 중에서는 ‘내(제)가 느끼기에는, 내(제) 눈에는’류가 8.7%(4회), ‘개인적으로, 내(제) 개인적인 의견은’류가 6.5%(3회)로 나타났다. 한편 약화형은 10.9%(5회)로 중급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짐작형 ‘아마(도)’ 역시 6.5%(3회)로 감소하였다. 또한 조건형은 2.2%(1회), 동감형 ‘맞아(요)’는 6.5%(3회), ‘내(제)도 그렇게 생각하다’는 2.2%(1회)로 나타나, 고급 집단은 중급 집단과 달리 동감형 및 인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국인 집단에서는 동감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46.8%, 43회), 그중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요)’류가 44.6%(41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인지형이 28.2%(26회)로 나타났고, 주관형은 12.0%(11회)로 확인되었다. 주관형의 세부 실현 양상은 ‘내(제)가 보기에는, 내(제) 생각에는’류가 6.5%(6회), ‘내(제) 경험으로는’류가 2.2%(2회), ‘개인적으로’류가 2.2%(2회), ‘내(제)가 느끼기에는’류도 1.1%(1회)로 분포하였다. 또한 약화형은 6.5%(6회), 모호형은 4.3%(4회)로 나타났으며, 조건형은

8) 지면의 한계로, <표 11>에서는 <표 4>에서 제시된 유형별 어휘적 완화 장치 예시들 중 일부만을 언급하였다.

2.2%(2회)로 확인되었다. 반면 짐작형 ‘아마(도)’는 한국인 집단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인 중급 집단은 약화형 사용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인 고급 집단은 동감형과 인지형의 사용이 증가하며 완화 전략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에 가까워지는 발달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집단은 동감형과 인지형의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아, 비동의 상황에서 상대 발화에 대한 동의, 수용 신호 및 담화 표지를 통해 완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중급 및 고급 한국어 학습자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동의 화행 전략과 비동의 화행 실현 시 사용한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비동의 화행 전략 사용에 있어, 중국인과 한국인 집단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 집단은 동감적 비동의 전략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반면, 중국인 집단에서는 해당 전략의 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Niu Lei·권순희(2024)에서 확인된 것과 같았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비동의 의견의 표현하기보다 수긍과 인정을 통해서 보다 완곡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중국인 중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이 한국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화용 능력이 숙달도에 따라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비동의 화행에의 어휘적 완화 장치의 사용에 있어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인 집단은 약화형 완화 장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한국인 집단은 동감형 완화 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국인 집단에서는 동감

형 완화 장치인 ‘그렇구나’, ‘그렇군요’와 ‘그래(요)’의 사용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비동의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비동의 전략을 ‘동감적 비동의 전략’으로 실현하게 하는 주요한 언어 표현으로 기능한다. 이 표현들은 교수나 학습이 상당히 간단하지만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완화 장치로서 사용하지 못해, 한국인들의 비동의 화행 전략과 거리가 먼 ‘비동감적 비동의 전략’을 실현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비동의 화행을 지도할 때, 전략 사용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비동의 상황에서 적절한 완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동감형 어휘적 완화 장치는 학습이 용이하여 초급 단계부터 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인의 발화 습관과 같이 발화함으로써 보다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동의 화행의 완화 장치를 어휘적 완화 장치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 문법적 완화 장치와 억양으로 실현되는 완화 장치, 나아가 비언어적 완화 장치까지 포괄한 종합적 분석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희, 「한국어와 영어의 과업중심대화에 나타난 반대표현의 양상」, 『담화와 인지』 24(4), 담화-인지언어학회, 2017, 1~20쪽.
- 김민선,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완화 장치 사용과 한국인의 반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태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민경, 「네덜란드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동의 화행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 이혜원,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텍스트에 나타난 비동의 화행 전략 연구」, 『한국어문화교육』 15(2),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22, 75~99쪽.
- \_\_\_\_\_, 김은정, 윤영심, 이명지, 「사회적 거리와 지위에 따른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도 화행별 비동의 화행 연구」, 『이중언어학』 84, 이중언어학회, 2021, 339~368쪽.
- 이혜진, 「한국어 교재 대화문에 나타난 비선호적 응답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 전정미,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비동의 응답화행 연구」, 『한말연구』 55, 한말연구학회, 2020, 215~242쪽.
- \_\_\_\_\_, 「비동의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2011, 325~352쪽.
- 조은미, 「비교문화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본 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총미가, 「상황과 사회적 변인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의 비동의 화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4.
- 황선영, 「요청 화행에서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연구-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147, 한국어교육학회, 2014, 431~454쪽.
- \_\_\_\_\_,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분석을 통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화행 연구」, 『이중언어학』 62(-), 이중언어학회, 2016, 185~208쪽.
- 후지이 지후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비동의 화행 연구: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2.
- NIU LEI, 권순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동의 화행 양상 비교」, 『국어교육학연구』 59(2), 국어교육학회, 2024, 5~38쪽.

- Rosyadi, Alfiana Amrin, 「인도네시아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완화 장치 사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Blum-Kulka, S., & Olshtain, E. Requests and apologies: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CCSARP). *Applied linguistics*, 5(3), 1984, 196-213.
- Edstrom, A, “Expressions of disagreement by Venezuelans in conversation: re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ulture”, *Journal of Pragmatics*, 36(8), 2004, pp. 1499-1518.
- House & Kasper,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ing in a foreign language”, *Perspectives on language in performance*, 2, 1987, pp. 1250-1288.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Disagreement Speech-Act Strategies and  
Lexical Downgrader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Kim, Minsu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NIU LEI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collected utterance data from 30 Korean native speakers and 30 Chinese learners of Korean at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using a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across three disagreement situations. The collected data were then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use of disagreement speech-act strategies and lexical downgrader.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native speakers tended to mitigate face threats by using empathetic disagreement strategies such as ‘agreement’ and ‘acknowledgement,’ along with empathy-oriented mitigation devices such as ‘I see’ and ‘Right/Okay.’ In contrast, Chinese learners displayed relatively limited use of these strategies and lexical downgrader, and tended to rely more on downtoners such as ‘a bit’ and ‘somewhat’. These results were also statistically validated as significantly different through a cross-tabulation (chi-square) analysis and a post hoc analysis of standardized residual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dvanced learners exhibited patterns of disagreement strategies and lexical mitigation devices more similar to those of native Korean speakers than intermediate learners. Therefore, when teaching the speech act of disagree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ruction on empathy-oriented lexical downgrader from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levels, alongside explicit strategy instruction.

Keywords: disagreement speech act, lexical downgrader, speech-act strategies,  
Chinese learners of Korean

김민선(제1저자)

소 속: 서울신학대학교

전자우편: mssky516@stu.ac.kr

NIU LEI(교신저자)

소 속: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우편: rayniu@naver.com

논문투고일 2026. 02. 01 / 심사완료일 2026. 03. 11 / 게재결정일 2026. 03. 14